



한 줌 재 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

독도박물관 초대관장, 이종학 선생을 반추하다

영토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늘 첨예하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독도는 의심할 여지없는, 한결같은 '우리 땅'이건만 일본은 아니란다. 이런 점에서 독도는 늘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정점에 상징처럼 등장하곤 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보이는 데 일생을 바친 이가 있다. 굳은 의지로 '독도지킴이'를 자처했던 서지학자, 사운 이종학(李鍾學, 1927~2002) 선생의 숭고한 노력을 알아 보았다.

글 김수란 사진 오철민 자료 이선영 제공

독도에 대해 높아진 관심 최초의 영토박물관 독도박물관

우리의 영토와 한일관계에 관한 사료를 다방면에 걸쳐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종학 선생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져 갔다. 1981년부터 일본에 있는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직접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해 작고할 때까지 총 60여 차례나 왕래할 정도였다. 그는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표기한 지도와 자료를 찾아서 일본 정부에 이야기하고 해외 제3국에 제시하는 것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믿었다.

일본의 도서관과 고문헌 수집상을 제집 드나들 듯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종학 선생을 모두 알아볼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시기 그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수천 종의 귀중한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일본 시마네현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독도가 명실공히 우리 땅임을 피력했다.

이종학 선생은 독도와 관련해 수집한 그의 사료가 쌓여 갈수록 이를 실증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1994년 울릉군과 함께 독도박물관 건립을 발의, 이듬해인 1995년 5월 울릉군에서는 대지를, 삼성문화재단은 건물을, 그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기증하기로 합의한 약정서를 교환했다. 독도박물관 건립은 이렇게 그의 주도하에 차근차근 구체화되었다. 1997년 8월 8일, 마침내 독도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영토박물관으로서 울릉군에서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이종학 선생은 다음 해 2월 초대관장이 되었다. 그가 독도와 동해 명칭 등과 관련해 독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는 고문서, 고지도 등 2,200여 점으로 일평생 일본을 왕래하며 모은 귀한 자료였다. 그의 자료가 없었다면 독도박물관 건립 추진 논의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할 정도다.



史芸

한일합방의 부당함 알리고 최초 남북공동 역사자료전시회 개최까지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가 '시마네현 고시'이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편입했다는 것인데 이종학 선생은 국내 최초로 일본의회와 시마네현 의회 속기록, 신문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일본의 미공개 자료를 1992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최초로 입수한 것도 이종학 선생이었다. 한일합방의 강압적인 과정을 담은 일본 최고위층의 보고서 '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은 지금껏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문서였다. 이 문서를 이종학 선생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을까. 선영 씨는 첩보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부반출이 불가능한 자료였는데 아버지는 외부에 숨겨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으로 베끼는 것은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복사집을 찾아 컬러복사를 하셨죠. 폐관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문서를 다시 제자리에 뒀다고 해요. 정말 두근거렸다고 말씀하셔요.”

1994년 그는 일본 공문서관에서 또 하나의 극비문서들을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일본에서 한일합방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일본 법정의 기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서지학자 이종학 독도박물관에 잠들다

역사를 김매기하기 했던 이종학 선생의 생전 업적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수많은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도,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대동여지도' 원본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한일합방이 강압에 의한 조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도, 과거 '수원성'이라고 불리던 수원의 '화성'이 제 이름을 찾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이 개관하게 된 것도, 모두가 이 한 사람, 사운 이종학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난 2001년 북한 방문 이후 쇠약해진 그는 이듬해인 2002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살아생전 '한 줌 재 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라는 이종학 선생의 유지에 따라 그의 유해는 지금 독도박물관에서 독도와 함께하고 있다.

李鍾學



· 이종학(1927 - 2002) ·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출생, 종로 5가 '권독서당' 책방 운영(1955), 연세대 앞에서 고서점 '연세서림' 운영(1957), 첫 독도 방문(1983), 거북선 머리 구조 등을 밝힌 『해장집』(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발굴 및 공개, 수원시사 편찬 및 집필위원(1985), 독립기념관 개관(첫 번째 입장, 독립기념관 1호 입장권 기증)(1987), 자료 수집 차 북경대, 연변대 등 10여 개 곳 방문(1988),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동학혁명 100주년기념 특별전시회-이종학 소장 문헌 자료전' 개최(1994), 문화재관리국에 수원성 명칭을 화성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서 제출(1996), 사운연구소 개소(종로 수운회관 310호)(1996), 30년간 수집한 독도 관계 자료를 토대로 울릉군·삼성문화재단·중앙일보와 협의하여 울릉군에 독도박물관 건립 추진(1997), 독도박물관 개관(독도관련 자료기증)(1997), 독도박물관 초대관장 역임(1998-2001), 순천현대 이순신연구소 초대소장(1999-2000), 독도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자료 기증(441종 746점)(2001), 누적기증자료 총 830종 1,301점,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훈(2003), 수원박물관에 전채소장 자료 2만여 점 기증(2004), 수원박물관 내 '사운 이종학사료관' 개관(2008), 동북아역사재단 제5회 독도상 '독도사랑상' 수상(2014)